



‘스포츠는 국력이다? 스포츠는 자급력이다!’ 오일머니의 중동지역에서도 국가 크이 존재한다. 카타르와 시리아가 대표적이다. 2014인천아시아대회를 참가한 카타르는 1인당 GDP가 무려 세계 2위인 10만 4000달러(2013년)인 축복받은 선유국이다. ‘오일머니’의 힘으로 외국선수들을 ‘수입’해 국가대표를 만들어 스포츠강국 진입을 시도한다. 반면 오일머니가 없는 시리아는 경제난에 독재와 내전으로 시름에 인친 아시아대회를 선수단 30명을 출전시키는 데 그쳤다. AP뉴시스

카타르 ‘귀화열풍’ 시리아는 ‘선수기근’

집중 분석 | 중동스포츠 ‘극과 극’

카타르, 오일머니 팍팍 귀화선수 무장 먹고살기 바쁜 시리아, 선수단 30명뿐 지경학적 요인 탓에 경제력 차이 극심

우리에게 중동은 이슬람교, 석유, 테러 같은 이미지로 떠오를 법하다. 그러나 중동은 그 역사와 땅덩어리만큼이나 다양성을 띠는 지역이다. 걸프 해(海)를 끼고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6개국은 석유가 나오는 부유한 국가다. 반면 서쪽 사막지대에 위치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나라는 석유는 거의 구경조차 못하는 빈곤국가다. ‘갯간에서 인심난다’고 이런 살림이 뼈뼉하다보니 정치적 불안요소가 이 지역을 엄습한다. 최근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세력으로 성장한 IS(이슬람국가)의 거점인 시리아 북부에 생겨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지경학적 요인 탓에 아랍권 내에서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고, 이는 곧 스포츠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인천아시아대회에서 카타르와 시리아의 사정을 통해 중동의 극과 극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카타르, ‘금메달 얼마면 되니?’

카타르엔 세금이 없다. 이 나라 여권소지자에게는 물지도 따지지 않고 월 5000달러(약 500만원)를 통장에 넣어준다. 거리에 외제차가 넘쳐나고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축구장에서 티켓 추첨을 통해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당침 따위 관심 없는 곳이 카타르다. 인구 80만명을 상회하나 절반 이상이 수단, 인도 등의 이주노동자다. 세계 3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덕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없는 구조다. 천국도 부러워할만한 곳이 카타르다. 이런 카타르가 유독 관심을 쏟는 분야가 스포츠다. 카타르 왕족인 알 사니 가문은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내세워 문화와 경제 중심지로 삼는데 맞서 수도인 도하를 스포츠와 교육 허브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드러냈다. 2006년 아시아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축구 아시아대회를 개최했다. 유럽의 영향을 받아 축구와 핸드볼이 인기가 높는데 2015년 세계핸드볼선수권과 2022년 축구 월드컵을 유치한 상태다. 카타르 핸드볼은 지난 2월 바레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인천아시아대회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카타르의 강력한 힘은 결국 오일달러에서 나온다. 자국 국민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자 아예 국가대표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아시아대회를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귀화선수 규정에 관해 ‘3년 이상 그 나라에서 거주’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엔트리 15명 중 12명에 달하는 카타르 귀화선수 중 7명은 올해 아시아선수권부터 카타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선수들이다. 이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했으나 카타르가 ‘3년간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도리가 없어졌다. 심증은 있는데 뒤얽을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카타르는 최정에 다국적 멤버로 아시아대회에 나선다. 한국 핸드볼의 국제통인 강재원 부산시설공단 감독은 “한국이 신장 2m6cm짜리 유럽 출신 피봇의 높이와 양쪽 윙의 스피드를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르는 감독부터 세계선수권을 우승시킨 스페인 출신이다. 아시아대회 금메달에 엄청난 메리트를 걸어놓고 있어 동기부여도 높다. 핸드볼 관계자는 “국제핸드볼연맹(IHF)은 귀화 규정이 OCA보다도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IHF도 중동세가 점령한 상황인지라 카타르의 다국적 국가대표를 막을 방편이 없다.

●시리아, ‘먹고 살 힘도 아질 판에..’

카타르와 달리 오일머니가 없는 시리아는 선수수입은커녕 자국 선수관리도 힘겹다. 아시아대회에 9번째로 출전했으나 선수단 규모는 30명(여자 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단체 종목은 인건생심이다. 레슬링 유도 공수도 육상 복싱 트라이애슬론 사이클 역도 경연 등 9개 개인종목 참가가 전부다. 오랜 전란에 시달린 이라크가 13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데 비해 시리아 기사는 1명도 못 왔다. 시리아는 북한 뺀지는 알 아사드 대통령의 폭압정치로 벗어난 정치적 모순으로 미국의 경제봉쇄를 초래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북한,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으로 꼽은 나라가 시리아였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민심이 분열됐고, 극단적 반군세력이 나타났는데 바로 IS였다. 미국과 유럽 기자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IS의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IS 공습을 시작했는데 시리아 북부가 집중표적이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아시아의 축재인 아시아대회는 시리아인들에게 먼 나라 얘기 같다. 인천 | 김명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사라진 통역자원봉사자 84명의 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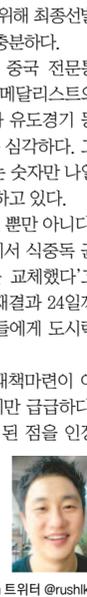
■ 취재파일

2개월 만에 갑자기 사라진 84명의 통역전문자원봉사자. 인천아시아대회의 책임회피용인가? 기사는 23일 통역전문자원봉사자 중 상당수가 근로조건 및 처우가 당초 약속과 달라 대회 초반 일을 그만뒀다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결과 최종 선발된 교육은 마친 총 1145명 중 현재 878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회 초반에 포기한 116명과 대기 인력(40명)을 제외하면 최종 선발 1145명 중에서 111명이 부족했다. 중도 포기한 한 통역자원봉사자와 이메일을 통해 직접 사연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약 100여명의 통역자원봉사자가 이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스포츠동아 24일자 4면 단독보도 참조) 본지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자 인천아시아대회의 조직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역전문자원봉사자 총 모집인원 1061명 중 대회시작과 함께 약속대로 참여하지 못한 116명과 대기인력 40명을 제외하고 27명이 중도 포기해 878명이 활동하

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원봉사자 운영의 총책임자인 이일희 기획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통역요원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명확히 구분된다. (세부인원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곧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총책임자는 통역요원은 자원봉사자가 ‘명확히’ 아니라고 했지만 몇 시간 후 조직위 의전부는 정반대로 ‘통역전문자원봉사자’로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조직위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있었다. 요약하면 (스포츠동아가 단독보도한) 통역전문자원봉사자의 이탈자는 100여명(111명)이 아니라 27명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84명이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최종 선발인원, 바로 전체 인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본지는 최종 선발인원을 1145명으로 보았고 조직위는 1061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위는 6월 29일 28일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통역전문자원봉사자로 최종 선발된 1145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갖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했고 많은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왜 같은 조직위에서 최종 선발인원을 6월엔 1145명으로 밝히고 통역전문자원봉사자 이탈 파문이 일자 1061명으로 바뀌어 보도자료를 냈을까. 해명자료를 작성한 조직위 의전부 의전팀 이창훈 담당관에게 24일 확인 전화를 걸었다. -기자 : “당초 총 인원이 1145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해명 자료는 1061명이다. 전체 숫자가 다르니 중도 이탈로 파악되는 인원도 차이가 난다” -담당관 : “1145명? 언제 그렇게 발표했나? (6월 28일이다) 어. 이게. 그랬나. (잠시 침묵) 모집 인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기자 :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선발된 사람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냐? 현황을 다시 알려 달라. 총 인원이 다른데 이탈 인원을 어떻게 파악했나?” -담당관 : “(당황하며) 내게 묻지 마라. 미안하다 전화 끊겠다.” -기자 : 이후 수 십여 차례 다시 전화를 걸고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기자 목소리를 확인하고 아무런 응답 없이 전화를 끊기도 했다. 통역자원봉사자 대기 이탈 파문이

일차 조직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선발인원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갖기 충분하다. 25일 육권국제사격장에서는 중국 전문통역자원봉사자가 없어 중국대표 메달리스트의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핸드볼과 유도경기 등 다른 경기장에서도 통역 부족은 심각하다. 그러나 조직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만 나열하며 ‘문제없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조직위의 ‘구멍 난 행정’은 이뿐만 아니다. 조직위는 19일 선수용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자 ‘22일 제조업체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결과 24일까지 문제의 업체는 여전히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직위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불명확한 해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아시아대회는 길지 않다. 잘못 된 점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45억 아시아를 대표해 인천을 찾은 귀한 손님들에게 아시아대회는 어떤 기억이 남을까.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hkh



“세팍타크로 금 따면 포상금” 중주국 태국의 불편한 현실

자국내 인기 감소...경기장 규모도 점차 축소

“세팍타크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 포상금 3420만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세팍타크로 중주국 태국의 이야기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눈물겹다. 중주국의 위상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어 거역의 당근까지 내진 태국의 불편한 현실이다. 세팍타크로는 한국인에게 무척이나 낯설다. 규격화된 배드민턴 코트에 볼을 떨어트리지 않고 상대 코트로 넘기는 경기다. 플링 스파이크나 시저스틱 같은 화려한 기술들이 거꾸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무협 영화를 보는 짜릿한 재미가 있다. 말레이시아어로 ‘차다’라는 뜻의 세팍과 태국어로 공을 뜻하는 ‘타크로’가 붙어 지어진 이름이다. 어원 그대로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중주국을 놓고 입씨름을 벌인다. 최근엔 미얀마까지 가세해 중주국 논란은 더욱 거세진 형국이다. 뉴욕타임즈는 “가장 아시아인다운 스포츠 중 하나”라고 손꼽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서구의 아시아 환상이 빚어낸 표현이다. 태국은 세팍타크로에 목숨을 걸었다. 나라의 국기인 만큼 대중적 관심이 대단하다. 2014 인천아시아대회는 3인제 경기인 레구와 팀 경기(레구를 3차례 치르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태국 정부는 세팍타크로 선수들에게 금메달 획득 시 10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420만원의 포상금을 약속했다. 더블 종목에 출전하지 않은 태국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여유를 뽐냈다. 24일 남녀 팀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동메달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포상금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세팍타크로 중주국인을 자처하며 세계 세팍타크로를 이끌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국 인기에 취해 국내의 마케팅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인기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태국에서 최고 인기 종목이었던 세팍타크로는 축구와 배구에 그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 축구와 배구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 거듭된 추락이 불가피하다. 국내·대회를 치르는 경기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일례다. 옷지 못 할 중국도 있었다. 한국 남자대표팀이 태국에서 열린 2012세계선수권대회(킹스컵) 더블과 레구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자국내 언론을 통제하기도 했다. 국내의 한 세팍타크로인은 “한국에서 비인기종목의 설움도 큰데, 중주국에서마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태국이 세팍타크로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북한 관계자들이 22일 송도 달빛축제정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대회 역도 남자 69kg급 경기에서 김명국이 인상 3차 시기에서 대회신기록인 160kg에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한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역도선수권에서 안면을 익힌 북한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려했지만,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천 | 뉴시스

남북 역도, 재회 못한 이유?

작년 평양서 인연...北 내부지침에 접촉 꺼려

메달 총합에서 밀리는 북한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북한의 전략적 육성 종목인 역도다. 북한은 2012런던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중 3개가 역도에서 나왔다. 2014인천아시아대회에서도 20일 남자 56kg급의 염윤철(23)이 용상 세계기록(170kg)을 달성하며 우승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아시아올림픽역도선수권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41명(선수 22명·인원 19명)의 한국선수단이 참가했다. 당시 북한 관계자 15명은 한국선수단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다. 북한의 국보유적 1호 평양성을 둘러보고 옥류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천아시아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선수단을 관리하는 역할인 듯 보였다. 한국 역도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대접을 받았으니 인천에선 우리가 식사라도 한번 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들과의 만남을 타진했다. 그러나 대회 조직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돌아온 북한 관계자들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부지침 때문인지, 개별적인 만남을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선수단 역시 냉랭하진 마진간지다. 우리 역도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단 내에서도 북한선수들은 한국선수와의 접촉을 꺼린다. 한국선수단도 ‘북한선수들과의 개별 행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했던 역도 관계자는 “식사와 만남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인천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